

다른 종교는 어떠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알아볼
큰 질문(big question)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다른 종교는 어떠한가?'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흔히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신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실하기만 하다면 다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신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신실함 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고자 한다고 합시다.

제가 어느 곳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코틀랜드, 어떤가요?

가서 멋진 구리 빛 피부로 선댄을 하고 싶다면
스코틀랜드는 적당한 곳입니다.

그럼, 제가 스코틀랜드로
운전해서 가고자 한다면,

제가 있는 영국 북동부에서
중앙부, 주요 고속도로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남쪽 또는 북쪽으로 갈 수 있겠죠.
(스코틀랜드는 영국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럼 제가 차로 남쪽으로 향한다고 칩시다.
제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이쯤에서 말하겠죠.

‘잠깐, 당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방향이 맞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
남쪽으로 빠르게 운전하면

스코틀랜드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를 믿으시지요?’

그럼 승객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신실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는 신실하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쳤던 시험이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답을 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어디입니까?’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에고, 큰일이다. 정말 어렵다.’

그리고 답을 썼습니다,
‘카디프(영국 웨일즈의 수도)’

그리고 답안지를 받아 보니
자신의 답에 빨간 큰 글씨로

틀렸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답이 틀렸잖니, 그렇지?’
그럼 당신은 ‘아니요.’

저는 진짜로 답이 카디프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틀렸죠?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 지가
시험을 통과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그렇다면, 모두 100점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신실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실함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른가요?

그럼 오늘 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들으셨지만,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서는,
'그(예수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배와 바다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킨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삶은 크루즈(주로 여행할 때 타는 멋진 배) 같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여행에서 해야 할 일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기독교가 좋다면

여기에 서있고, 다른 종교가 좋다면,
저곳에 서있어라.

만약 네가 마음에 드는 종교를 만들고 싶다면
너에게 맞는 종교를 만들어라.

상관없다. 그냥 즐기고,

너에게 맞는 것을 찾아라.
그럼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삶을 가리켜 ‘크루즈선’이 아니라,
‘침몰하고 있는 배’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 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오직 한 구조선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밖의 다른 수많은 구조선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예수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다른 구조선들은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구조선들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맞는 구조선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왔고,
나의 교훈을 따르면,

너만의 작은 배를 만들어, 그 배를 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실을 말하려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구세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구조선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그 배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문화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타적인 주장을
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분 자신이 그러한 주장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좋지 않으세요?

전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맨 먼저 비행사가 탑승합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어떻게 이륙하는 지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착륙하는 지에 대해서도 자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거만한 사람이군.

저런 비행사가 다 있다니!
당신이 비행기에 탔다고 합시다.

시작방송에서 떨어지는 듯한
불안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 안...안녕하세요? 저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뭐? 안돼! 안돼!' 우리는 정말로 중대한 일
일수록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은 사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놀라시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요?
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야 하나요?

음,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입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보여주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진실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단지 추측을 하시는 것도,
만들어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정말로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도,
인기가 그 진실성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극적인 구원 임무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면,
그의 죽음만이 단 하나의 해결책이었다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야 했다면,
어떻게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과 저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창조주와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 나를 주로 모시면,

너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각 조로 돌아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더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